

# Is justified true belief knowledge?

## Edmund L. Gettier

From Analysis 23 (1963): p.121-p.123, Translated by 정재환, Jehwan Chung, 박기영 Keeyoung Koak, 2001, Updated: 2010-Jan-08

p.121

<sup>1.1</sup>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in recent years to stat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someone's knowing a given proposition. <sup>1.2</sup> The attempts have often been such that they can be stated in a form similar to the following:

- (a) S knows that P    IFF  
P is true,  
S believes that P, and  
S is justified in believing that P.\*

<sup>2.1</sup> For example, Chisholm has held that the following gives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knowledge:

- S knows that P    IFF  
S accepts P,  
S has adequate evidence for P, and  
P is true.

<sup>3.1</sup> Ayer has stated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knowledge as follows:

- (c) S knows that P    IFF  
P is true,  
S is sure that P is true,    and  
S has the right to be sure that P is true.

<sup>4.1</sup> I shall argue that (a) is false in that the conditions stated therein do not constitute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truth of the proposition that S knows that P. <sup>4.2</sup> The same argument will show that (b) and (c) fail if ' has adequate evidence for ' or ' has the right to be sure that ' is substituted for ' is justified in believing that ' throughout.

121쪽

<sup>1.1</sup>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이 주어진 어떤 명제를 알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들을 밝히려고 다양하게 시도했었다. <sup>1.2</sup> 이런 시도들은 종종 있어왔으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비슷한 형식으로 밝히려고 시도했었다:

- S는 P를 안다 IFF  
P는 참이고,  
S는 P를 믿고, 그리고  
S는 P를 믿는데 정당화되어졌다.\*\*

<sup>2.1</sup> 예를 들어, 치즘은 지식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

- S는 P를 안다 IFF  
S는 P를 받아들이고,  
S는 P를 위한 적절한 증거를 가지며, 그리고  
P는 참이다.

<sup>3.1</sup> 에이어는 지식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들이 다음과 같다고 밝힌다.

- S는 P를 안다 IFF  
P는 참이고,  
S는 P가 참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S는 P가 참이라고 확신할 권리를 가진다.

<sup>4.1</sup> 나는 앞에서 밝힌 그런 조건들로는 S가 P를 안다는 명제의 진리값을 위한 충분 조건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a)가 거짓이라고 논증할 것이다. <sup>4.2</sup> 이와 같은 논증으로 만약 '-는 -를(을) 위한 적절한 증거를 가진다' 또는 '-는 -가 참이라고 확신할 권리를 가진다'를 'S에게 P의 믿는데 정당화되어졌다'로 대체된다면 (b)와 (c)도 실패한다고 보여줄 것이다.

\*참고: 이 문장을 일반적으로 "S의 P에 대한 믿음은 정당하다," "P를 믿는 것이 S에게 인식적으로 정당하다" 등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believing"의 의미를 못 살리는 것 같아서, 그 의미를 살리고자 "S는 P를 믿는데 정당화되어졌다"라고 번역해 봤습니다.

5.1 I shall begin by noting two points. 5.2 First, in that sense of 'justified' in which S's being justified in believing P is a necessary condition of S's knowing that P, it is possible for a person to be justified in believing a proposition that is in fact false. 5.3 Secondly, for any proposition P, if S is justified in believing P, and P entails Q, and S deduces Q from P and accepts Q as a result of this deduction, then S is justified in believing Q. 5.4 Keeping these two points in mind, I shall now present two cases p.122 in which the conditions stated in (a) are true for some proposition, though it is at the same time false that the person in question knows that proposition.

5.1 Case I:

5.2 Suppose that Smith and Jones have applied for a certain job. 5.3 And suppose that Smith has strong evidence for the following conjunctive proposition:

6.1 (d) Jones is the man who will get the job, and Jones has ten coins in his pocket.

7.1 Smith's evidence for (d) might be that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assured him that Jones would in the end be selected, and that he, Smith, had counted the coins in Jones's pocket ten minutes ago.

7.2 Proposition (d) entails:

8.1 (e) The man who will get the job has ten coins in his pocket.

9.1 Let us suppose that Smith sees the entailment from (d) to (e), and accepts (e) on the grounds of (d), for which he has strong evidence. 9.2 In this case, Smith is clearly justified in believing that (e) is true.

10.1 But imagine, further, that unknown to Smith, he himself, not Jones, will get the job. 10.2 And, also, unknown to Smith, he himself has ten coins in his pocket. 10.3 Proposition (e) is then true, though proposition (d), from which Smith inferred (e), is false. 10.4 In our example, then, all of the following are true: (i) (e) is true, (ii) Smith believes that (e) is true, and (iii) Smith is justified in believing that (e) is true. 10.5 But it is equally clear that Smith does not *know* that (e) is true; for (e) is true in virtue of the number of coins in

5.1 나는 두 가지 면에 주목하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5.2 첫 번째로, S가 P를 믿는데 정당화되어 진다가 S가 그 P를 아는데 필요조건이라는 면에서 '정당화됨'이라는 단어의 의미로는, 어떤 사람이 사실 거짓인 명제를 믿는데 정당화된다는 것이 가능하다. 5.3 두 번째로, 어떤 명제 P에서는, 만약 S가 P를 믿는데 정당화되고, P가 Q를 논리적으로 함축하고, 그리고 S는 P에서 Q를 연역한 후 이 연역의 결과로 Q를 받아들인다면, 이때 S는 Q를 믿는데 정당화되어진다. 5.4 이 두 가지 면을 염두에 두고, 나는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 사례들은 (a)에서 밝힌 조건들이 특정 명제에겐 참이지만, 동시에 질문 당사자는 그 명제를 안다는 것이 거짓이 된다.

5.1 사례 I:

5.2 스미스와 존스가 어떤 직장에 지원했다고 가정해보자. 5.3 그리고 스미스가 다음과 같은 연언 명제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6.1 (d) 존스는 바로 그 직장에 취직하게 될 사람이고, 그리고 존스는 자신의 주머니에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다.

7.1 (d)를 위한 스미스의 증거는 그 회사 사장이 그에게 존스가 결국 선택될 것이라고 보증하고, 그리고 스미스, 그 자신이 10분전에 존스의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들을 세었다는 점일 것이다. 7.2 명제 (d)는 다음을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8.1 (e) 그 직장에 취직하게 될 사람은 주머니에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다.

9.1 이때 스미스는 (d)가 (e)를 논리적으로 함축함을 알고, (d)를 근거로 (e)를 받아들인데, 왜냐하면 그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보자. 9.2 이 경우, 스미스는 명백하게 (e)가 참이라고 믿는데 정당화되어진다.

10.1 그러나, 더 나아가, 스미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존스가 아니라, 스미스 자신이, 그 직장에 취직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해보자. 10.2 그리고 또한, 스미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자신의 주머니에도 동전 10개가 있었다. 10.3 이때 명제 (e)는 참이지만, 스미스가 (e)에서 추론했던 명제(d)는 거짓이다. 10.4 이런 우리들의 예에서, 이때,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은 참이다: (i) (e)는 참이고, (ii) 스미스는 (e)가 참이라고 믿으며, (iii) 스미스는 (e)가 참이라고 믿는데 정당화되어졌다. 10.5 그러나 동시에 명백한 점은 스미스가 (e)가 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스미스의 주머니 안에 있는 몇개의 동전 덕택으로 (e)는 참이지만, 반면에 스미스는 자신의 주머니

Smith's pocket, while Smith does not know how many coins are in Smith's pocket, and bases his belief in (e) on a count of the coins in Jones's pocket, whom he falsely believes to be the man who will get the job.

11.1 Case II:

11.2 Let us suppose that Smith has strong evidence for the following proposition:

11.3 (f) Jones owns a Ford.

12.1 Smith's evidence might be that Jones has at all times in the past within Smith's memory owned a car, and always a Ford, and that Jones has just offered Smith a ride while driving a Ford. 12.2 Let us imagine, now, that Smith has another friend, Brown, of whose whereabouts he is totally ignorant. 12.3 Smith selects three place-names quite at random, and constructs the following three propositions :

Either Jones owns a Ford, or Brown is in Boston;

p.123

Either Jones owns a Ford, or Brown is in Barcelona;

Either Jones owns a Ford, or Brown is in Brest-Litovsk.

13.1 Each of these propositions is entailed by (f).

13.2 Imagine that Smith realizes the entailment of each of these propositions he has constructed by (f), and proceeds to accept (g), (h), and (i) on the basis of (f).

13.3 Smith has correctly inferred (g), (h), and (i) from a proposition for which he has strong evidence. 13.4 Smith is therefore completely justified in believing each of these three propositions. 13.5 Smith, of course, has no idea where Brown is.

14.1 But imagine now that two further conditions hold. 14.2 First, Jones does *not* own a Ford, but is at present driving a rented car. 14.3 And secondly, by the sheerest coincidence, and entirely unknown to Smith, the place mentioned in proposition (h) happens really to be the place where Brown is. 14.4 If these two conditions hold then Smith does *not* know that (h) is true, even though (i) (h) is true, (ii) Smith does believe that

안에 있는 동전이 몇개 인지 알지 못하고, (e)에 대한 믿음을 존스의 주머니 안에 있는 동전 숫자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때 그는 존스가 바로 취직하게 될 그 사람이라고 잘못 믿고 있다.

11.1 사례 II

11.2 스미스가 다음 명제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11.3 (f) 존스는 포드차를 소유하고 있다.

12.1 스미스의 증거는 아마도 존스가 스미스의 기억에선 과거에 늘 차를 소유했는데, 항상 포드차였고, 그리고 방금 존스가 포드차를 운전하면서 스미스에게 포드차를 타라고 권유했었다. 12.2 이제, 우리는 스미스에게 브라운이라는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 스미스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상상해보자. 12.3 스미스는 임의로 지명 3곳을 고른 후, 다음과 같이 명제 세 개를 조합했다:

존스가 포드차를 소유하거나, 브라운은 보스턴에 있다.

121쪽

존스가 포드차를 소유하거나, 브라운은 바르셀로나에 있다.

존스가 포드차를 소유하거나, 브라운이 브레스트-리토프스크에 있다.

13.1 각각의 이들 명제들은 (f)를 논리적으로 함축한다. 13.2 스미스는 자신이 (f)를 가지고 만들었던 각각의 이들 명제들의 논리적 함축을 깨닫고, (f)를 근거로 (g), (h), 그리고 (i)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13.3 스미스는 그가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명제로부터 (g), (h), 그리고 (i)를 올바르게 추론했다. 13.4 스미스는 그러므로 이들 세 가지 명제들을 믿는데 완전히 정당화되어졌다. 13.5 스미스는, 물론, 브라운이 어디에 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14.1 그러나 이때 두 가지 더 나아간 조건들을 받아들인다고 상상해보자. 14.2 첫 번째로, 존스는 포드차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현재 빌린 차를 운전하고 있다. 14.3 그리고 두 번째로, 완전히 우연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스미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명제 (h)에서 언급한 장소가 정말로 우연히 브라운이 있는 곳이다. 14.4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비록 (i) (h)가 참이고 (ii) 스미스는 (h)가 참이라고 믿고, 그리고 (iii) 스미스는 (h)가 참이라고 믿는데 정당화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스미스는 (h)가 참이라고 알지 못한다.

(h) is true, and (iii) Smith is justified in believing that (h) is true.

<sup>15.1</sup> These two examples show that definition (a) does not state a *sufficient* condition for someone's knowing a given proposition. <sup>15.2</sup> The same cases, with appropriate changes, will suffice to show that neither definition (b) nor definition (c) do so either.

Wayne State University

<sup>15.1</sup> 이 두 가지 예는 정의 (a)가 어떤 사람이 주어진 명제를 알기 위한 충분 조건을 밝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sup>15.2</sup> 적절한 변화를 준, 같은 사례들 또한 정의 (b)와 정의 (c)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보여줄 것이다.

Wayne State University

참고: 본문에 있는 번호는 원본의 쪽수와 문단, 문장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1.1은 원본의 문단번호.문장번호입니다.